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존제)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자유율법 실천운동

#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 지상천국을 건설하자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다(네팔지진)

지금 지구촌은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 참사에 대한 고통을 공유하며 구호의 손길을 보내기 위한 온정이 쇄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구호대를 최우선적으로 보냈다. 참 잘한 일이다. 현재 8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네팔은 눈물과 탄식의 불행의 땅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자유율법을 실천하는 우리 승리제단 교인들도 이곳의 불행을 남몰라하면 안 될 것이다.

### 지상천국의 새로운 정의: 영생의 세계

지상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좋은 낙원이라고 답할 것이다. 전쟁과 싸움이 없고 평화만 있으며, 질병과 고통이 없고 기쁨만 있는 곳일 것이다. 물론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입지 않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상천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바로 죽지 않는 곳이라는 점이다. 왜 죽지 않는 곳이 지상천국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 되는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죽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죽음을 극복하여야만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기쁨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상천국이란 죽음을 극복한 온전한 인간이 된 하나님(부처님)이 사

는 세계인 것이다.

### 죽음을 극복하는 법

승리제단을 세우신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죽지 않으려면 자유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자유율법에 따르면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후손이므로 한 형제 한 자매임과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공경하지 않으면 자유율법을 못 지킨 것이 되어 죽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기적 존재인 내가 어떻게 남을 내 몸처럼 여길 수 있으며, 하나님처럼 공경할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은 '한몸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한몸 사상'이란 인류는 모두 한 조상의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으므로 영적으로는 하나라는 뜻이다. 따라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남이 아니며, 성이 다르다고 남이 아니라 모두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남이란 없으며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 영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은 구세주의 출현이다. 구세주란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은 태초에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1980. 10. 15. 찾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되었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조희성 선생을 구세주로 이 세상에 내려 보내셨으며, 조희성 구세주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의인을 키워내는 역사를 24년간 하다가 때가 되어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슬성신) 세계로 돌아가셨다. 조희성 구세주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신 것을 보광(普光)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통 사람의 죽음과는 전혀 다르다. 조희성 구세주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신(道成人神)의 존재로서 지금도 인류의 죄를 담당하면서 영생 세계 건설을 위해 영로 역사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정제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존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바 삼위일체 하나님은 초초로 발달 상승하는 영이다. 앞으로 전 인류를 영생하게 할 능력이 충만한 때가 되면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영생 세계를 건설하실 것이다. 앞으로 나타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류에게 영생의 빛을 발하시게 되며, 그 빛을 받은 모든 인류는 영생의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어 영생의 세계가 건설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의인들이 빨리 많이 나올수록 지상천국은 앞당겨져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승리제단 신도들은 영생정진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중천 기자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경축(慶祝) 아버지날

### 인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경배(敬拜)합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곤두박질을 하시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죽어갈 때마다 통곡을 하시고, 그 하나님 입장은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눈물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아니면 얼마나 우시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기를 쓰신 것을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의 심정은 어느 누구도 당신의 지체처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던 '하나님 엄마'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온 천하 마귀가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엄마와 자식 사이를 때어 놓을 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 주는 엄마입니다. 시간 시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마귀가 공격하지만 늘 이 영적엄마가 분신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날을 기해서 다 같이 새 출발할 것을 결의해야 하며, 엄마처럼, 하나님처럼, 똑같이 자유율법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엄마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 포기하지 마라

구세주께서 자유율법을 선포한 지가 벌써 35년이 되었다. 이는 승리제단 교인들이 많게는 35년 동안 자유율법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몇몇 신도들을 보면 자유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자유율법은 마음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죄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보자,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음란죄"라는 내용이 있다. 물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음란 죄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다.

### 이성(異性)을 의식해도 죄

그런데 자유율법에서는 상대가 이성(異性)을 보고 남자 혹은 여자라고 의식하면 음란죄라고 한다.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왜 음란죄라고 하는가? 상대를 이성(異性)으로 의식하는 순간 나라는 마귀 영이 들어와서 자신속의 하나님의 영과 영적 음란을 짓게 되므로 음란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부처님)이 되려는 신도들은 제일 먼저 음란을 이겨야 한다. 음란 죄를 이기지 않고서는 영생은 결코 없다는 것이 구세주의 말씀이다. 자유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신도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 영적 싸움이 된지도 모르는 신도가 있다면 정말로 한심한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영적 싸움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품어 나가려는 노력이다.

### 포기하지 않는 수가 많아져야

하지만 마귀가 그것을 하계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시아사피 인간 세상은 마귀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눈에 띄는 거의 모든 것이 음란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 그러다보니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는 금세 마귀에게 다시 포로가 된다. 그러다가 다시 애를 쓰고 기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 또 다시 마귀의 포로가 된다. 이것을 반복하다보니 '나'는 안 된다 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는 배추를 썰 때나 쓰는 말이지 영적 싸움에서 포기는 곧 죽음이다.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자유율법을 못 지켜도 좋다. 자유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지만 하라. 그러면 구세주가 구원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포기를 모르는 신도들이 많아질수록 영생의 세계는 그만큼 빨리 도래할 것이다. 그 세계가 빨리 오느냐 더디 오느냐 여부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 본부제단 소식

## 윤봉수 대표, 신도회장으로 뽑혀



승리제단 운영위원회(윤봉수 회장권한 대행)는 5월 첫째주 토요일 정기운영위원회를 열어 차기 신도회장으로 윤봉수 승리제단 대표를 선출하였다. 윤봉수 신임신도회장은 김상욱 회장의 유고로 1

년간 회장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아울러 박철수 본부제단 총무, 성주희 본부제단 부인회장, 김원찬 부산제단 책임승사를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윤봉수 신임 회장은 5월 5일 구역장 전체회의를 열어 본부제단 4월 성적에 대한 우수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씀을 하였다. 윤 회장은 "신도회장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자유율법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를 죽이는 심정으로 회장이라는 직책을 받아

들었다"라고 말한 후 회장으로서는 "첫째, 제단 운영방향이 구세주께서 원하는 방향인지 항상 살피고 살필 것이며, 둘째, '나'를 죽이는 것이 자유율법입니다 '나'를 죽이는 수순대에 누운 심정으로 일을 할 것이며, 셋째, 전 제단 신도들의 머슴이자 심부름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4월 본부 지역활동에서 3지역 1등

또한 "현재 우리의 현안은 제단 보수 공사이다. 아버지날 절기 성금 때에 보수공사헌금을 추가 배정하였으므로 구세주의 입장에서 꼭 목표를 다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윤회장은

"지역 1등도 열심히 한 결과이지만 개인 1등은 정말 힘든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시상하는 것 이외에 구세주께서 따로 상급(賞給)을 매기시어 백보좌심판 때에 시상해 주실 것으로 안다"고 시상의 말씀을 하였다.

- 지역 1등, 3지역 (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이승애)
- 지역 2등, 5지역 (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지역 3등, 4지역 (지역장 윤봉수, 지회장 이영애)
- 구역 1등, 성주희 54구역장
- 구역 2등, 이정자 29구역장
- 구역 3등, 고선희 42구역장
- 개인 1등, 정수운 승사
- 개인 2등, 김인숙 집사
- 개인 3등, 강춘희 권사\*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